

제주짜설매국에  
일문관바람운님이소사나니  
주목상토외을망건.숙구리당뜰에  
산수림흙전립은일문대단안을밧고  
다공단불님믄에소공단췌음믄에  
왕구슬밀화믄에해오래비헛튼짓에  
동방사쥬봉의바지.북방사쥬봉의져고리  
남비단섭조쾌자.수라쥬통전대라  
안음가득활을발고.붕어눈을부릅쓰고  
삼각수를거스리어.살하나를내쏘으면  
삼천군병이소사나고  
또한살을내쏘으면.삼천군병이돌아들고  
현문에상통하고.디리에하달하더라  
풍설에들으니.산넘고바다건너만리밧게  
비오너라비오천리.홍토나라홍토천리에  
고산국이라는미색이잇다거늘  
청구름을둘너타고.순간에그곳을이르니  
과연미색이잇는지라.인사를청한즉  
어뎃손임임니가  
제주한라산설매국에  
소사난일문관바람운입니다  
나는고산국입니다  
인사를맛친후에.얼골을피차보니  
서로반하얏다  
당신을동경하야  
멀길을생각안코.이리차저왓소  
간밤에꿈이매우묘하든니  
오날에당신을맛나는경복을당하얏소  
서로가합쟈가되여.부부를맺어  
이삼일의행복이지나니  
의외에미녀가쏘낫타낫다  
그것은고산국보담도  
멧배나훌능한현하절색의처자였다

저것이 누구뇨 무른즉  
고산국 말이, 나의 동생이 외다 하거늘  
서로 인사를 난호와  
아지 망아지 방하며, 다정하게 지내 였다  
그러나 그 째 붓터, 일문관의 마음 속에는  
이 삼일의 행복이 째여지고 말았든  
가 삼은 어두어 젖다  
일순간이라도 고산국의 동생을  
잊을 수업 셨나니  
그러 헌 용맹 헌 영웅의 기세는 어데를 가든고  
못 보면 그리웁고, 맛나면 어리둔 절하야  
심신이 불안하며, 고산국의 앞에서는  
큰 죄인이나 되진 듯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낫다  
그러나 고산국의 동생도  
혼자 일문관을 한이 업시 사랑하 았스되  
궤로운 마음은 속 일문관과 틀 님이 업 셨다  
그러나 그 처자는 일문관의 궤로움을 몰낫고  
일문관은 처자의 괴로움을 몰낫스며  
그리워는 하면서도  
서로 맷날 째마다, 완색은 불안하고  
나종에 냉정하야 보인다  
이러 헌 괴로움이 이십여 일을 지나니  
일문관은 마지막을 결심하고  
월야의 삼경을 타서  
처자의 연 헌 손목을 쑁잡았다  
그러나 일문관은  
말하여 듣 것도 움직기 힘들어 바리고  
굵은 눈물만 쑁쩔어 진다  
처자의 얼굴에도 눈물이 줄지여 흘 넣다  
그러나 소리 처울지 못 헌 것 만더 육답답하 았다  
수십 일 후에, 둘 사이에는  
도망의 밀약이 성립되 였다  
어두운 밤 안에 청구룸을 둘너 타고  
제주령산을 이르렀다  
밤이 새임에, 고산국은 째고 보니

일문관바람운은기적이업슴에  
늦잠을자는가하야  
일문관의방안에가고보니업고  
서늘한찬바람을먹으려고,후원에나나갓나하고  
차저보니역시그림자도업다  
그러나놀나운것은  
일문관의행장이허공중던한것이다  
고산국은어이업서,할일업시  
일문관의행적을의론코저,동생을찾아가니  
동생좆차간곳이업고,행장좆차업서졌다  
고산국은일문관은비록못밋칠싸보되  
역시턴문에정통허고,디리에능달현신인이라  
요것들둘이지랄피워도망친것이아닌가하고  
마지막의방법으로,명턴에게축도를드린후에  
령괴를내들었다,깃발은역풍을불구하고  
한라산을향하야고운차게번들거리였다

고산국깃발을쌀아달니여  
제주한라영산에이르니  
과연동생과바람운이도망하야,부부를맺고  
첫사랑에흉취하고잇는지라  
분괴충턴하야,게우살의쏭게로  
둘을한숨에사살코저하니  
동생되는고산국은안개도술을피우거늘  
먹장갓흔밤이되어  
형되는고산국은정신이아득하게되였다  
형은별별도술을부리고  
하나님께몇번이나축도를드리나  
원래동생의술이능현지라  
검은안개를헷칠길이바이업고  
몸을빼쳐날묘책이업거늘  
도로혀굴하게되였다  
그리하야동생보고,이잔악허고몰인정현년아  
내가아모리쏭게를들었든들  
너를죽일수잇스며  
설혹내가너를죽이려햇든덜

죽일죄를걸며진네년이  
형을이런험경에말너죽일수잇는야  
죄송치도안이허냐.그러나이악녀야  
나는너를참아히못죽일터이다  
우리서로가해치말기로하야.이안개를거두어라  
이리하야일문관바람운이  
향남가지를꺽꺼다가,층암절벽에찔으니  
커다란닭이되어,목성을높이들고소리처울거늘  
밤이새여가며,동방에고은달이소사올음에  
비로소완면을분별하게되였다  
고산국이대로하야  
이죽일년아.잡을년아  
도마우에찍을놈아.금수갓흔바람운아  
내가처음의생각에는,너희들을모조리죽여도  
억분함은참으로남을것갓더라만은  
참아히그럴수는업구나  
그러나마녀야,너는내동생이아니라  
성을변하야지가로할엿다  
나는고산국으로가려허나,남이붓그럽고  
단지방향은발가는대로이다  
너는너갈데로가거라  
나는나갈데로어데든지가리라  
고산국은이리하야모든인연을끈허두고  
한람으로내려와버리니.지산국바람운은  
한라산의백록담해굼운이달굼운이등에유산타가  
좌명디를징하려고.천리경걸령쇠를노와보니  
웃당근리가조커늘.거게가서보왓다  
그러나합당치못함에.다시쇠를째워보니  
살오름봉대기가멱합하야  
거게다가좌명하야백자열을치고잇섰다

웃서동김봉태라는인간이  
지달피웃통에산달피알통황구피두루막에  
목좁은약돌기상토지둘너차고  
네눈이,목동연이,보말짜기,청삽사리  
개네놈을데려서,사농노리를가려고

하잣우에올나보니  
살오름상봉에,백자열이처잇거늘  
백자열은신선이나신인이안이면  
두를수업는것인대  
수상타하야.증잣에올나보니,그냥잇고  
상잣에올나보아도,역시그냥잇슴애  
필연코저것은신위라하야  
백보외로가서합수상배하얏다  
엇쩌헌인간이냐.웃서동김봉태가됨니다  
무언일로나왓는가  
사농노리로왓습니다.엇쩌헌신위오니가  
설매국에소사난일문바람운이되노라  
홍토나라홍토천리,비오너라비오천리  
지산국이되노라  
엇썬일로,이런곳에네립찌가  
옥황상예분부바더  
인간의인물구경,인물차지왓노라  
네그럿소이가  
너는우리에게테운인간이리니  
우리길인도를하여라  
네황송하오이다  
여기서데일가까이보이는데가엇썬마을이냐  
그것은웃서귀가됨니다  
저알옛것은하서귀입니다  
쏘저서편것은엇썬마을이냐  
그것은서홍리가됨니다  
그러면웃서귀로길인도를하야라  
그러나웃서귀를오고보니  
좌명지가멱당현곳이업슴으로  
너의집으로동거하야  
연석달을류하는것이엇쩌냐  
대단이황송하오나  
인간의집은몹시나루추하옵나이다  
몬짓내나고그실먹내나고  
화식내나고인간내나고하야  
신위가류하옵기에는

넘우나죄송하겟사옵니다  
그래도관찬타.네집을가자  
잔소리그만두고,사세부득못아가니  
참아히동거기는죄송하야  
웃당팟에남을비여다가  
쟈으마케집한채를지여놋코  
죄송하오나.림시여기게시옵소서  
두신위는연석달을잇서본즉  
말탄인간보기실코.개짐승보기실으니  
우리가여기살수업다하야.김봉태를불너서  
우리가너에게은혜를만히찌쳐서.미안하다  
몇달후에소식잇슬터이니  
그리알고잇스라하야두고쩌낫다

이리하야먹고흘이라는궤에이르러좌명하고  
연석달을경과하되  
곁에흘으는시내의물소래와  
일면으로울창현수풀이울적함으로  
두신위는새로운좌명지를상의하게되였다  
내종에고산국과는불화하야갈넷스나  
우리로는한번만나보는것이도리가당응하며  
한번만난후에  
좌명터도깁그는것이조타고결명하얏다  
고산국은서홍리인물차지로잇섯든바  
그에게통지하야.가시머리멧돌로맛나기로하얏다  
그레명현날자에명현장소로맛나니  
고산국이로색을풀지안이하며  
어찌하야다시맛나자고나를불넷소  
언제든지이모양으로하기보담은  
우리가원만이상의하야.지경을갈하고  
땅차지인물차리로들어스는것이부당할까  
한번인연을아주끈어바렸는데  
원만이무엇이며.상의가무엇이랴  
그러나일문관바람운이강히사정을하니  
부득무가내하라듯이.고산국이성을내며  
뽕게를날니니.학탐에이르고

일문관바람운이활을쏘니,문섬한돌로일으렷다  
거게서고산국말이무가내하요  
나는학담을경계하야  
서홍골을젼양차지할터이니  
당신내란문섬이북우알서귀를차지로들어가되  
서홍리사람이동홍리흔인못하고  
동홍리인간이서홍리흔인못하고  
동홍리당한이서홍리못가고  
서홍리당한이동홍리못갈테이니  
그리알시요

고산국은서홍리로들어가바리고  
바람운은지남석걸녕쇠를노아보니  
하서귀신남상가지에,시완상기조호매  
내려와좌명을한즉  
어느인간하나이용토광토안이하얏다  
하롯날은우서귀오가종손이발병하야  
병세험악하더니  
입으로바람운과지산국의사실만단을베풀며  
지금우리가신남상가지에와잇스되  
본체만체몰은체하니,꿰심하기짝이업서  
그런병을주었노라  
이러하니오가에서는하서귀로날여가서  
위선송집에사실을원하얏다  
그래송집이솔선한바되어  
우알서귀향민이집합하야  
당집을설연키로결명하고  
남들을무수히버혀다가,당집을지여노왓다  
그리하야당한이를명하고,서울로올나가서  
월광단,일광단,공당비단,대단,초록명주  
은가락주,금가락주,왕구슬,밀화끈을사다가  
백매를설연하고,정월초하롯날과세문안대제  
이월십오일날영손마지대제  
칠월십삼일날마풀님대제  
십일월일일생진제기내게되고  
후에김봉태는

바람운지산국의공인으로써불은바되어  
두신위의부하로들어가서  
인간의제명을밧게되였다  
그리하여두신위는우알서귀본향이되야  
좌하고잇섰다

그전붙어소남머리.수진포금상황제부인이  
웃서귀신남쪽을바라보니  
어쩐의외의신위가좌명하야잇거늘  
괴리히역여와서.어떤신위뇨  
바람운지산국이오이다  
무슨일로이곳에오셨소이가  
우알서귀인물차지로와소이다  
나도하서귀차지입니다  
아차실수하엿습니다  
당신이하서귀인물차지로잇는줄알었다면  
우리가이럿치를안을터인데  
그줄을몰낫슴이다.미안합니다  
그러나황제부인은더욱친절히하는말이  
나는힘이약함으로  
동서으로오는위험을막을수업고  
동서의인물을다사릴수업소이다  
당신은우알서귀못테인민을마타서다스리면  
나는룡궁을마타서  
가는배오는배.가는바자기오는버자기  
가는잠수오는잠수.가는손임오는손임  
마타서다스리겟습니다  
황제부인은룡궁으로들어가고  
일문관지산국은우알서귀인물차지로들어가서  
인간에게제명을밧는다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上』, 대판옥호서점, 1938, pp.341-357.